



농협교류센터-광양 부암마을 결연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농협교류센터(대표이사 구자목)는 최근 광양시 부암마을 등 전국 3개 자매결연마을에 도서 1천 800권과 태극기 300개를 기증했다. (사진)

한편 농협교류센터는 전 직원이 급여액의 1%를 모아 강원 지역 수해복구에 써달라며 농협강원지역본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구자목 대표는 "앞으로도 1사1촌사업이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끈끈한 정이 담긴 도·농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고창군, 상수도 긴급 복구반 운영

고창군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상수도사업소장(소장 김은기)을 책임자로 4개반 13명으로 구성된 상수도 시설물 긴급복구반을 운영한다.

고창군은 이 기간동안 상수도 파손 등 민원신고 접수와 동시에 담당 구역별로 수리반을 신속히 파견하는 등 겨울철 상수도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은 또 '겨울철 상수도시설 관리요령'을 담은 홍보물 3천 매를 제작, 각 가정에 배포했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

폐목재 재생공장 분진 공해 심각

나주시 노안면 학산 주민들 대책마련 촉구

나주시 노안면 학산 주민들이 인근 폐기물 재생업체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나주시 노안면 학산 5구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10여년전부터 폐목재로 톱밥과 합판 재료를 생산하는 폐기물 재생업체가 들어서면서 분진 발생 등 각종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 마을 주민들은 날아드는 분진으로 인해 한 여름에도 문을 열지 못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업체는 또 폐기물의 허용 보관물량인 736t 보다 훨씬 많은 1천300여t 가량의 폐목재를 쌓아 놓고 있는 등 관련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

이처럼 쌓인 물량이 많아 보니 미처 처리하지 못한 폐목재 더미가 쌓여 우천 시 오염된 침전물이 인근 지하수로 스며

들지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

주민 김모(74)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청에 민원제기를 했으나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 업체는 현재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가동을 계속하고 있어 행정당국이 방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 1일 업체 대표와 주민 간 대화에서 업체 측이 내년 3월까지 대책을 세우기로 주민들과 약속했다"며 "업체의 약속 이행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먼지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사이클론'을 이미 도입했고 야적장 주변에 펜스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영광군, 原電 관련 43억 추가 세수 확보

영광군이 영광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적법한 재산세 부과세를 적용으로 43억 5천만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영광군은 올 초 영광원전 부지 용도를 검토한 결과 전체 459만㎡의 부지중 190만㎡를 제외한 나머지 269만㎡(전체면적의 60%)는 원자력 발전시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토지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들 토지는 현재 내지와 공원을 지, 임야 등으로 원자력발전시설과는 무관하다는 것.

군은 이에 따라 269만㎡의 토지에 대해 원전발전시설에 적용되던 분리과세

세율(0.2%)이 아닌 종합합산세율(0.5%)을 부과했다.

이처럼 새로운 재산세를 적용으로 올해 영광원전토지분 재산세에서 1억5천만원을 추가 징수했고 지난 2002-2005년도분 37억원을 추징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는 등 올해에 대한 43억5천만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

43억5천만원은 올해 영광군 지방세 수입 252억원의 17%에 해당된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삼호중, 고3수험생 초청 견학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강수현)이 수능시험을 마친 영암·목포지역 고3 학생들을 위한 산업시설 초청 행사를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목포고 3학년생 120명 등 400여 명이 찾아 선박 건조 현장과 홍보관을 둘러 보는 등 12일 현재 9개교 1천400여명이 견학을 마쳤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저소득층 의료급여

광산구, 적극 홍보

광산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이 각종 의료비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인 저소득층 주민들이 의료비 면제와 감면 등 각종 지원사업을 몰라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등 긴급 홍보활동에 나섰다.

광산구에 따르면 병원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하는 차상위(의료비만 지원)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올해 393명이 책정됐으나 신청자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처럼 저소득층 주민들의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이용이 저조하자 홍보책자를 발간, 배부했다.

한편 광산구 관내 의료급여 대상자는 7천 654세대 1만4천 341명으로 파악됐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완도수협, 3개 출장소 폐지 방침

금당·생일·노화 주민 큰 반발

부실경영으로 2005년부터 수협중앙회 관리인 대표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완도수협이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금당면과 생일면·노화 면도 등 3개 출장소를 폐쇄할 방침이어서 금당면을 비롯한 해당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폐쇄되는 출장소 직원들이 본소 등에 배치돼 인건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현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완도군과 해양수산부 등에 제출했다.

특히 주민들은 금당면의 경우 출장소가 폐지될 경우 장흥군과 강진 마량을 거쳐 고급 수협 지점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장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민들은 "부실경영은 중앙회의 관리 감독 소홀에도 큰 책임이 있는 만큼, 만약 수협 출장소가 현행대로 운영이 안될 때는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실력진도' 명성쌍기

진도교육청 '4대 과제' 추진

진도교육청(교육장 김재진)이 ▲교사·장학사 결연제 ▲우수교원 초빙 수 업연찬회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학 력 실명제 ▲진도 전통예능교육 등 '4대 중점과제와 특수시책'을 추진,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교사·장학사 결연제'는 진도지역에 교육경력 5년 미만의 교사가 많음을 감안, 경력·근무지·전공 교과 등에

따라 6개 분과로 나눠 전체 활동과 분과 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체활동은 교과별 교수학습과 이론 연수 등을 통해 유능한 교사로 성장하도록 돕고, 분과별 활동 역시 학습지도, 학급경영 등 일선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을 담당 장학사와 이메일 교환 및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김재진 교육장은 "진도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자기양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편안하고 깨끗한 고급객실!
그 명성 그대로

25년 고객사랑!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음식 만들기 25년!!

광수장관방포럼·아리랑하우스

입소용 전문팀·난방기 대표 브랜드

입소용 방·난방기 - 슬수록 돈 버는 센추리

>> 무담보, 무보증 장기분할 구입 가능 <<

- 75% 연료비 절감!
- 무보증 장기할부
- 무연료 방·난방

1588-8717, 062-266-7541

우성온수매트!

15년전부터 [우성] 매트에서 만든 할수 있는 제품

다지발매식/점액침/방한매트/천장스파

- 100% 안전 매트
- 100% 안전 매트

1600-7234